

한다. 애초에 유토피아와는 달리 분지의 작은 공동체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현실에 속하기에,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도, 따라서 완전히 보호받지도 못한다. 노예, 총독, 신부,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두 가족의 공간을 파고 들어 사회적 요구와 문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, 이런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두 가족의 행복은 나약하게 무너질 조짐을 보인다. 하지만 이 공동체가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 내부에 있다. 사실 ‘작은 낙원’을 내세우는 대부분의 서사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한 사회와 현실의 사회악으로 말미암은 불행 사이의 대립을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. 애초 토마스 모어 이래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는 사회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자연과 덕성에 따라 살아가는 분지의 작은 사회도 이른바 유럽의 잔인한 편견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지만, 이 유럽, 다시 말해 유럽 사회의 악에 희생된 인물인 두 어머니가 이 작은 낙원의 토대이자 동시에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애초 이 낙원의 운명은 스스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. 그리고 이 실패의 계기는 다시 자연에서 비롯한다. 자연의 풍요는 곧 생명의 힘이고, 그 힘은 영원히 정적인 것이 아니기에, 자연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면 두 아이는 언제까지고 아이로 남아 있을 수 없다. 사춘기의 육체적, 정신적 성장은 친남매처럼 자라온 아이들의 관계에 변화를 요구